

보도 참조자료

□ 진 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경제신문사 주최 『제1회 한경e금융페스티벌』 행사에 참석하여 시상하고, 금융의 디지털화의 중요성 및 정부와 금융인의 대응을 요지로 축하 말씀하였음.

○ 일 시 : '01. 7.16(월) 14:00

○ 장소 :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

<수상자>

○ 대 상(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상) : 삼성증권

○ 한경상(한국경제신문사장상) : 한빛은행

○ e금융상(협회장상) : 신한은행, 키움닷컴, 교보생명, 삼성화재, 삼성투자신탁운용, 국민신용카드

<주요참석자>

류시열 은행연합회장, 오호수 증권업협회장, 양만기 투신협회장, 유종섭 여신금융협회장, 황영기 삼성증권사장, 이수창 삼성화재사장, 김봉수 키움닷컴사장, 배호원 삼성투신사장, 김연기 국민카드사장, 한동우 신한은행부행장, 김종옥 한빛은행부행장, 장형덕 교보생명부사장 등

※ 별첨 : 제1회 『한경e금융페스티벌』 시상식 축사

2000. 7. 16(월)

재정경제부 공 보 관

연락처 : 은행제도과(500 - 5354~6)

제1회 「한경c금융페스티벌」 시상식

祝 辭

2001. 7. 16

副總理 겸 財政經濟部長官
陳 揔

김영용 사장님, 수상자, 그리고 내빈 여러분!

먼저, 금융의 e비즈니스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가 『e금융페스티벌』을 처음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디지털시대를 맞아 금융 디지털화의 선도자로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금융부문의 누적된 부실을 털어내고 금융제도와 감독을 국제기준에 합당하게 정비하며,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해온 일부 대기업의 유동성 문제도 해결의 가닥을 잡아 왔습니다.

그 결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회복되고 금융중개기능도 정상화되면서 시장원리에 따른 상시 구조조정의 기본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하드웨어 개혁에 더해 신용평가·위험관리 역량을 확충하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함으로써 금융회사도 건전성 토대위에 수익성중시 경영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디지털화는 경쟁력 있는 선진 금융회사로 변신하기 위한 좋은 기회이면서 엄청난 도전이기도 합니다.

실물부문이 IT와 접목해 경쟁력 제고는 물론 벤처라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창출했듯이, 디지털화는 비용절감, 나아가 고부가가치 수익모델 창출기회가 되지만, 낙오 되면 생존조차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Citi은행의 경쟁상대는 이제 체이스맨하탄 은행이 아니라 IBM이다', '금융도 이제는 콘텐츠다'라는 리스턴 전 시티은행 회장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최근들어 금융회사의 IT투자가 늘고 전자금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디지털 마인드가 금융인 모두에 체화되지 못했고, 관련 금융제도와 관행 또한 디지털화에 부응하게 개선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계 일류의 초고속정보통신망, 2,000만명이 넘는 인터넷 인구, 우수한 인력등 금융 e비즈니스화를 가속화시킬 좋은 인프라가 있습니다.

금융의 디지털화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불가결하다는 인식하에 정부와 금융인 모두 합심 노력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전자금융의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24시간 홈뱅킹·편뱅킹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금융 공동망을 지속적으로 보완 확충하고, B2C와 B2B의 결제를 위한 전자결제시스템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금융 디지털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점검하여 필요하다면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이번 『e금융페스티벌』 행사처럼 금융 디지털화의 모범 사례(best practices)를 발굴하여 전파하는 기회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전자금융거래 확산을 위해 필수적인 고객 정보보호등 소비자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은행권의 경우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전자금융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규약이 여타분야에도 확산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유와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고객정보의 불법유출을 차단하겠습니다.

셋째로, 디지털화에 맞추어 관련 금융감독제도와 기법도 고쳐나가겠습니다.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과 시행세칙등 전자금융관련 규정을 보완해 나가고, 전자금융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IT부문의 검사와 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전자금융 감독역량을 확충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과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전문 검사요원도 양성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 못지 않게, 금융인 여러분의 금융 디지털화 실천이 중요합니다.

경제성을 고려한 적절한 IT투자와 더불어 필요하다면 IT분야를 아웃소싱, 공동 구축하는 발상의 전환도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남들에 뒤지지 않기 위해 유행처럼 하드웨어에 과다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국의 소규모 은행을 보면 IT투자를 스스로 전부 감당하기보다 아웃소싱이나 업무제휴를 적극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IT를 실제로 활용할 직원들이 상업적 마인드에 디지털 마인드와 기술을 접목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훈련에도 힘써야 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이번 『e금융페스티벌』이 해마다 일취월장하여 더욱 뜻깊고 권위있는 e 금융분야의 행사로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